

보도시점 2026. 10. 14.(수) 12:20
(2026. 10. 15.(목) 조간) 배포 2026. 10. 14.(수) 09:00

과기정통부,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와 미래 로봇틱스 발전 방향 논의

- 「2026 네이처 컨퍼런스」 계기 네이처 편집위원 및 KAIST 관계자와 간담회
- K-문샷으로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4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에서 열린 「2026 네이처 컨퍼런스」를 계기로 네이처(Nature) 편집위원 및 KAIST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로봇틱스 연구동향과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KAIST와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 KAIST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로봇 연구자들이 참여해 자율 로봇틱스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구혁채 제1차관은 영상축사에서 AI가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퍼지컬 AI의 중요성과 그 혁신의 중심에 있는 휴머노이드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가 로봇틱스 기술 발전과 국제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 KAIST 배충식 총장, 네이처 센서스(Nature Sensors) 올가 부브노바(Olga Bubnova) 수석편집장 등 편집위원들과 KAIST 명현·심현철 교수 등 로봇틱스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핵심기술과 난제, 국내 제조·연구 역량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퍼지컬 AI 기술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이라며, “과기정통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K-문샷을 통해 휴머노이드 생태계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늘 논의된

의견을 향후 휴머노이드 R&D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정책실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유은실 (044-202-4570)
		담당자	사무관	김영희 (044-202-451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인공지능
책임감